**예수님처럼 내려갑시다!**

<빌립보서 2:1-13>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the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 even death on a cross!)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사람들은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길 원치 않습니다.

저 북한이란 나라에서 장장 6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독재 권력 세습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의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다 지탄을 받는 모습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주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지요? 몇 가지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논문표절을 통해 교수가 된 한 스포츠 스타가 이번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와서 결국 당선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명해지신 한 분은, 과거에 출현했던 방송에서 했던 막말이 폭로되면서, 이번에 결국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한 중진 위원은 출구조사 결과 낙선이 유력해지자, 미리 자신의 트위터로 낙선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명예롭게 물러나 그 이후를 노리는 전략인가요?

내용을 보니,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비아냥 받지 않고 공약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 이제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방향으로 내 인생 3막을 시작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은혜 갚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그분의 인생의 제 3막은 과연 내려가는 길일까, 아니면 또 다시 올라가는 길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짓는 술어 중 하나가, 이처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리로 올려진다는 뜻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어 자유롭고 존귀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었지만,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 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본문 12-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자면,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단연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결정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됩니다. 즉 이 때부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높여진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온전한 구원이란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발적인 낮아짐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분과 더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마음을 같이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같이하시고,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자비와 긍휼로 섬겨주시듯, 여러분들끼리도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히 서로를 세워주고 돌보며 사십시오.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이기심과 자만심을 버리고 함께 노력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이 둘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상호 섬김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권위를 부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의 장점은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에 대해, 성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 그 적절성을 판단하고 최대한 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바람 잘 날 없을 것이고, 결국엔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와 같은 신학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 책임이 있고, 또 이 일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평신도는 구체적인 생업의 현장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보냄 받은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평신도들은 그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장점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오랜 시간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복음을 위해 낯선 곳에 보내진 선교사처럼, 만약 평신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인고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는 목회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의 삶 못지 않게 어렵습니다. 평신도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몸부림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 혹은 질문들을 목회자 및 다른 성도들과 공유하며 공동체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향력 있는 평신도로 살고자 했습니다. 대학 때 술은 안 마시면서도 술자리에는 빠지지 않으려 했고, 군 생활 기간이나 이후 대학원 생활 중에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면 그런 삶을 아주 탁월하게 잘 사는 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반면 차라리 한 쪽에만 집중하며 살 때 더 탁월함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평신도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각각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만약 한 쪽에서 예수 목사님에 못 미치는 목회자를 향해 “목사가 왜 저래?” 말한다면, 다른 쪽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에 못 미치는 평신도를 향해 “집사가 왜 저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명에 따라 서로를 세워주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랑으로 섬기려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우하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 모든 예정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늘 함께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며,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마지막 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C. 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 영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고전 8:3)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 이전에는 십자가가 있고 내일은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자비한 세상의 벽에 틈이 벌어졌고, 우리의 위대한 대장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 그 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웃의 영광의 짐, 무게, 부담이 우리 등에 얹혀야 합니다.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겸손해야만 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등은 그 짐에 눌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구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울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이 올려진 자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값싸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자의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받을 영광의 무게를 실감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을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